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마침표는 없습니다.

제49호 자랑스런 안전인 금호타이어(주)곡성공장 박 승 식 대리



오랜 현장경험에서 깨달은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18년...


봄을 재촉이나 하듯이 안개비가 희뿌옇게 흩날리는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나로선 걱정이 앞선다. 다행히 별 문제없이 비행기는 김포를 이륙하여 광주공항으로 향하였다. 흐린 날씨와 안개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하늘은 흰 구름을 뚫고 나오자 흰한 광명이 비추듯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 푸름을 더하였다. 태양이 언제나 그 곳에 있듯이 산업현장에 변함없이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자랑스런 안전인이 있기에 우리 산업현장의 신호등은 언제나 푸른색일 것이다. 오늘은 전남 곡성에 위치한 금호타이어(주)의 박승식 대리를 만나 그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년이 다하는 날까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박승식 대리는 올해로 안전의 길을 걸어 온지 어느덧 18년이 되어간다. 1979년 스물 네 살의 나이로 금호타이어(주)광주공장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10년간 타이어 생산 공정에 종사하였다. 1989년 지금의 곡성공장으로 발령을 받은 그는 타이어생산에 있어 최고의 숙련공으로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 공정의 책임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안전의 길을 걷는다.

당시 지금보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타이어 생산 공정의 특성상 많은 운반차량에 의한 충돌, 회전체 기계에 의한 협착 등 많은 위험들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큰 과제였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위험도 언제나 산재하고 있었다. 이에 박승식 대리는 산재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켰고, 운반차량 사용 규칙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회전체 기계의 덮개 설치, 위험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등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이러한 14년 동안의 노력은 2003년 환경안전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이제는 150,000여명이 넘는 거대한 공장과 2,200여명이 넘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가 되었다.

현장에서 얻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현장에 맞는 그리고 작업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를 실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박승식 대리, 안전은 현실성이 있어야 비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지난해 근골격계질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그로인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이제는 녹색관이라는 재활치료센터가 생겼고,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높은 공정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어느덧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이제는 정년까지 남은 6년, 그날까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요 다짐이다. 

< 임재근 기자 >